

# 22일 착공 세풍산단, 토취장 확보 못해 '비상'

〈흙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

### 시공사 저가입찰 영향...하도급업체 2곳 1달째 못구해 산단 조성사업 토사 700여만㎡ 필요...공사 차질 우려

광양시 세풍리에 500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세풍산단이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의 토취장(土取場) 미확보로 공사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산단조성을 위해서는 성토재료인 흙을 채취할 수 있는 토취장 확보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개발시행자인 세풍산단개발위의 영성현 업무처리에 따른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광양경제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착공식을 갖는 세풍산단은 2020년까지 총 5219억원을 투입, 3.0km(91만평) 규모로 개발된다.

세풍산단에는 바이오패키징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광양제철 연관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기능성화소재클러스터 59만5000㎡(18만평)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은 마무리 단계다.

세풍산단은 인근 주민들의 올해 추수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세풍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700여만㎡(초기 200만㎡)의 토사가 필요한 만큼 성토재료인 흙을 채취할 수 있는 토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지난 7월 선정된 하도급 업체 2곳이 4개월째 각

각 100만㎡씩 총 200만㎡의 토사를 채취할 토취장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한 업체는 최근 세풍리 인근 순천시에 토취장을 정해 현재 경관심의 중이며, 또 다른 업체는 광양시에 경관심의 신청을 했으나 지난 9월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토취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양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한 업체는 최근 신청 부지 중 일부에 경매신청까지 들어와 재심의 등 허가 절차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취장 허가신청 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경관심의조차 통과되지 않은 만큼 제때 공사가 추진될지 의문이다. 최종 허가까지는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토취장 미확보 사태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하도급 업체 선정시 저가입찰로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토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코 건설의 200만㎡(2개사) 토취장 입찰에는 1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각각 47억원과 57억원을 제시한 2개사가 하도급을 받았다.

하지만 적정 실행가는 100만㎡당 68억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저가 경쟁이 지나쳤



오는 22일 착공식을 가질 예정인 광양 세풍산단 조감도.

다는 주장이다.

실제 저가입찰을 받은 하도급 업체들은 토취장의 주 운영비인 운반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해야하는 탓에 세풍산단과 가까운 거리에서 토취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세풍산단을 추진하는 개발계획 시행자인 세풍산단개발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세풍산단 지역 착공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하도급 금액으로는 세풍산단에서 12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토취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책임질 또는 설계변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세풍산단은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의 기능성 화학소재 R&D 센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되면서 개발사업이 동력을 얻었지만, 시공사와 세풍산단개발위의 영성현 사업 추진으로 또다시 사업이 결동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광양경제청도 지난 8월 세풍산단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인 세풍산단개발위와 MOA를 체결하며 행정적 추진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자칫 착공 지연 등 사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토취장과 관련된 개발시행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진상을 파악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으려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시 올해 상복 터졌네

### 도시대상 특별상·일자리 경진 우수상 등 잇단 수상

광양시가 최근 정부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들을 제치고 연이어 각종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경제부분 특별상을 수상했다. 도시대상은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전국 87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이번 도시대상에서는 도시경제, 도시환경, 도시사회, 자원체계 등 총 4개 부문에서 서류평가와 현장심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으며, 광양시는 경제부분 특별상을 수상했다.

광양시는 도립미술관과 IFA올렛, 운전면허시험장 등 각종 시설 유지와 공업단지 조성으로 1조원 규모의 공장 유치, 인구유입에 대비한 택지 개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경제도시의 미래 비전(vision)을 세우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도시경제 정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점도 이번 수상에 힘을 보탤 것이다.

광양시는 또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으로 열린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부문 일자리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172개 자치단체에 대해 1, 2차 심사를 거쳐 광양시 등 최종 36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광양시는 광양민권 일자리사업단에서 운영중인 '전남 동부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광양시는 2016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우선 선정과 시비 대응자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됐으며, 1억 9300만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활기찬 경제도시, 지속성장 가능한 남해안의 중심 명품도시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민이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양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포스코, 세계철강협회 '올해의 혁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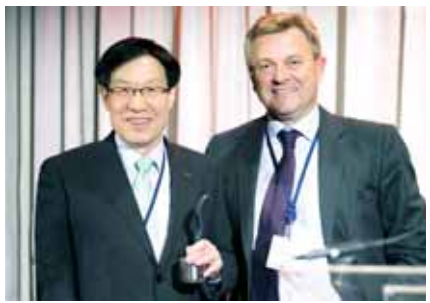
###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개발 공로

포스코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49차 세계철강협회(WSA) 연례총회에서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포스코는 지난 12일 열린 세계철강협회 연례총회에서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Lean duplex stainless steel with super ductility using a strip-casting process)'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사진〉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일반적인 스테인리스강 중 수준의 성형성과 내식성은 유지하면서 가격이 높은 니켈, 몰리브덴 등의 원료 함량을 크게 낮춰 원가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포스코 고유의 제철 신공법인 포스트립(poStrip)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트립 기술은 기존의 연속~가열~조업~사상연 등의 공정을 하나로 단순화한 것으로 쇠물



에서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바로 열연 코일을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도 절감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 고연성 린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기술 개발에 들어가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최적화 작업을 거쳐 지난해 9월 양산에 돌입했다.

한편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스틸 어워드'를 열어 혁신, 지속가능성, 웹사이트 등 총 7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내일 '골목아트플레이' 보러 오세요

### 광양 크그림기획연구소 개최 광영중 일대 다양한 프로그램

광양 크그림기획연구소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영중학교 골목 일대에서 골목아트플레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크그림기획연구소는 광영동 활성화를 목표로 광양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작가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미술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광양 시민단체들의 공연, 광영초등학교, 가야초등학교, 중진초등학교, 중마초등학교 등 초등학교와 지역작가의 작품 전시 등 시민이 향유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현숙 크그림기획연구소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광영동 일대를 아름답게 바꿔나가고 싶다"



면서 "광양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795-1919)로 하면 된다.

광양=배영재기자 byj@kwangju.co.kr

## '빛을 담는 도서관' 광양 희망도서관 설계 공모 당선



'빛을 담는 도서관' 건축모형도.

광양시는 15일 "광양 희망도서관"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서울소재 ㈜유엔아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빛을 담는 도서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빛을 담는 도서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외관이 친근하고 건축물 외야의 공간이 넓어 도서관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건물형상이 운영적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다는 평을

얻었다.

이번 설계 현상공모에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46개 업체가 응모했다. 한편 광양 희망도서관은 광양읍 칠성리에 부지면적 7287㎡, 건축면적 2272㎡ 규모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40억원, 건축비 60억원 등 100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30억원은 광양기업 황재우 사장의 기부금이다. /광양=배영재기자 byj@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이날은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222-9440	
정읍 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 부 652-0175	
		동 광 264-2012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문 흥 267-4748	
		백 운 673-4698	
		봉 선 675-6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5-68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웅 부 522-7752	
		우 산 512-8116	
		운 천 371-9818	
		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중 흥 224-6804	
		진 월 673-1600	
		첨 단 973-2900	
		장 평 224-8212	
		치 평 376-6511	
		동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